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연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연구원 자격요건을 자연계 학사 이상에서 전문대졸 이상이나 기사 2급 자격취득자중 경력 2년 소지자로 완화.
- △ 기업이 과학기술처와 관할세무서에 이중으로 신고해온 조세감면과 관련된 기술개발준비금 신고 (93년 2962억)를 앞으로는 관할세무서에만 신고토록 간소화.
- △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대상기관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영리추구법인을 추가해 기술개발 준비적립 대상업종으로 인정.
- △ 지금까지 과학기술처에 기술수출신고를 하도록 해온 것을 앞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해 기술수출을 원활히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정연구개발사업관리를 보강해 연구개발계획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 △ 국산 신기술제품 제조자에 대한 지원조치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절차에 의거 이해 당사자에게 반드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토록.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으로 지정.

◆ 國內外 情報 ◆

## 日 關西電力, 配電설비 購入

— 美 · 加 20개사서 20억엔 상당 —

일본의 關西電力은 94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변압기·송전선등 配電관련설비를 미국과 캐나다의 전력설비메이커 20개사로 부터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關西電力의 배전설비 해외조달액은 93년도의 2억엔에서 20억엔 수준으로 크게 팽창할 전망이고 동사가 거래하는 해외메이커도 종전의 20개사에서 2배인 40개사로 불어나게 된다.

구입할 자재 가운데는 지금까지 일본 국내메이커가 100% 공급해온 전선도 포함되어 있는등 엔高 정착으로 동사의 해외조달에도 이제 탄력이 붙고 있다.

關西電力은 해외로부터 강력한 시장개방요구를 감안, 지난 4월 자재구입과 관련된 조사단을 북미등으로 파견하여 배선설비에 한정시킨 구입확대 대책을 검토했었다.

자재의 구입선이 될 메이커는 미국 아라이드시그널·시코어·제너럴 인스트루먼트 등 20개사이다. 구입대상 자재는 통신선·저압절연전선·공구·컴퓨터 소프트등이다.

해외로부터의 자재조달과 관련, 관서전력의 우에야마 기요하루(上山清治) 상무이사에 따르면 “현재의 엔高로는 국내에서 자재를 조달하는 것보다 약 20~3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산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래를 개시하는 20개사중 통신선·저압절연전선등을 구입하는 6개메이커와는 장기거래를 예정하고 있다.

동사는 앞으로 종합상사를 통해 구체적인 구입량을 결정할 것이나 구입액 규모는 연간 총액이 1천억엔에 달하는 配電設備 구입계획중 2%에 불과한 20억엔선이 될 전망이다.

동사는 해외조달 대상품목수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어서 95년도에 해외조달액 규모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관서전력의 배전설비를 포함한 해외자재류 조달총액은 93년도에 약 150억엔에 달했었다.

## 핀란드, 電氣·電子제품 안전도 검사강화

### — 사전검사제 폐지 악용 위험제품 강력조사키로 —

핀란드 전기안전검사소(FIMKO)는 금년들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39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소의 발표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제품은 뒷쪽 커버가 없는 음향기기 앰프였으며, 전기 충격이 있는 PC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조명기기, 전력 공급연장선(Extention cord), 고압 페인트 살포기, 적외선 스위치, 소형 충전기 등의 판매금지 조치의 주 대상품목 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판매금지 조치는 금년 1월부터 발효된 EEA지침에 따라 핀란드 상공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FIMKO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 샘플 검사에 의해 적발된 것이며, 향후 이러한 무작위 샘플검사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우리업체가 핀란드 시장을 진출할 때 반드시 업무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Lehto 검사소장은 EEA 협정 발효로 시장 유통전 사전 검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악용, 안전도에 위험이 있는 제품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이를 강력하게 조사할 것임을 시사했으며, 또한 핀란드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등이 스스로 사전에 전기안전검사를 받아 FI마크(핀란드 전기 안전검사소 검사합격 마크) 획득을 권유하고 있다.

핀란드 전기안전 검사의 기준은 유럽에서도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심지어 EU기준보다 엄격해 EU 신기준 채택시 핀란드 기준이 참고가 될 정도여서 향후 우리업체는 핀란드, 나아가서는 EEA 및 EU 통합을 대비해 FI마크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FIMKO는 최근 아시아 고객 편의를 위해 臺灣에도 사무소를 개설해 제품검사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업체도 대만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다.

#### ◆ 臺灣 사무소 연락처 ◆

- 기관명 : FIMKO Office in Taiwan
- 담당자 : Mr. Tony Chen, Mr. David Lo
- 전 화 : 886-2-368-7675, 886-2-362-0808
- 팩 스 : 886-2-365-9521

## 페루, 전력공사 民營化 적극 추진 - 美·日 등 6개국 기업 入札 참여할 듯 -

페루의 양대 전력공사 Electrolima(수도권지역 전력공급), Electroperu(수도권 이외지역 전력공급)중 Electrolima의 정부지분 60% 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오는 7월 종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페루정부는 금년초 민영화를 위해 Electrolima를 발전부문(Edegel)과 전력공급부문(남부의 Edelsur와 북부의 Edelnor) 등 3개 기업으로 분리시킨 바 있으며 이중 2개의 전력 공급회사가 일차 민영화 대상이다.

한편 Electrolima의 잔여 정부지분 40%중 10%는 이 기업 종업원에, 나머지 30%는 당분간 정부가 보유, 향후 리마증권시장 등에 매각될 예정이며, 이번 민영화에 페루정부의 대외채무증서 활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CEPRI(페루 정부의 민영화추진 전담기관)는 그간 세계은행 산하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 및 리마소재 Banco Interandino를 Electrolima 민영화 프로모터로 선정, 93년 8월부터 세계 각 지역의 전력공급회사를 접촉했으나, 대부분 국가에서 해당기업의 해외영업 규제 및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어 다수기업 참여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Luis Carlos Rodriguez CEPRI 위원장은 현재 프랑스, 스페인, 칠레, 일본, 미국 등지의 6개 기업이 입찰서류를 구입,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CEPRI에서는 2개의 전력공급업체 매각후 즉시 Edegel의 민영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Edegel은 5개의 수력발전소와 1개의 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5개 수력발전소는 과거 스위스자본이 참여한 Empresas Electricas S.A.에 의해 설립돼, 70년대 초반에 페루 군사정권에 의해 국유화된 기업들이다.

## 日, 리튬 이온電池 生産확대 - 電池업계, 情報化社會의 주력전지로 급부상 -

日本の 전지시장 규모는 93년 기준 4,800억엔에 달하고 있다.

1차 전지인 건전지가 전체의 약 42%에 해당하는 2천억엔,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등 반복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전지가 나머지 2,800억엔을 차지하고 있다.

충전식 전지는 니켈카드뮴, 니켈수소 및 리튬이온(Lithium ion)의 3종류가 있는데 니켈카드뮴은 큰 규모로 放電이 필요한 기기에 쓰이고 니켈수소는 대용량, 리튬 이온은 소형, 경량에 적합한 특성이 있다. 충전식 전지시장은 정보통신관련시장의 수요증가로 리튬이온 전지를 중심으로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00년초에는 현재의 약 2.5배에 이르는 연간 7천억엔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리튬이온전지는 충전과 방전시에 양극과 음극사이를 리튬이온이 왕래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축전지로 현재 주류인 니켈카드뮴전지대비 2배의 전기용량과 3배의 전압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완전히 방전하기 전에 충전하면 충전용량이 감소한다는 메모리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기등에 유용하게 사용돼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니켈카드뮴전지에 비해 가격이 1.5~2배 비싸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리튬이온전지는 8mm 비디로나 MD(미니디스크), 휴대전화, 퍼스널컴퓨터의 보조전원으로 쓰이고 있는데 세계에서 리튬전지의 생산이 가능한 나라는 日本뿐이다.

21세기의 최대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멀티미디어의 핵심 구성요소로 액정(Loquid Crystal display, 온도계, 계기반, PC, V 스크린 등의 표시장치로 향후 대폭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됨. 95년 액정 표시 장치의 일본시장 규모는 1조엔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과 더불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리튬전지 생산에 일본의 주요 메이커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처음으로 리튬이온전지의 상품화에 성공한 소니는 94년말까지 자회사인 소니 에너지테크의 생산능력을 50%증강시켜 현재 월생산 100만개에서 500만개로 늘리게 된다. 지금까지 약 100억엔 이상을 투입해 왔으며 향후에도 수요동향을 관망하면서 신규설비를 도입할 의향을 비추고 있다.

소니와 더불어 선발메이커인 도시바와 아사히카세이 공업의 공동출자회사인 AT배터리는 새로운 생산설비를 건설, 금년 여름을 목표로 월생산능력을 40만개에서 160만개로 크게 늘리게 되는데 금년 중의 투자총액은 50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3월말에는 경영강화를 목적으로 자본금을 10억엔에서 35억엔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도시바와 아사히카세이가 절반씩 투자했지만 도시바전지의 자본참가로 출자비율이 도시바와 아사히공업이 각 40%, 도시바전지가 20%로 나누어지며 증자분은 설비투자로 돌려 본격적인 공급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들어 산요전기도 액정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정보단말기기의 핵심장치로서 주목받고 있는 리튬이온전지시장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휴대전화나 멀티미디어에 대응한 정보단말기 등의 전원으로 향후 수요가 급속히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요전기는 4월부터 둥근 모양의 리튬이온전지 생산을 개시했는데 당초의 월생산계획은 10만개였으나 50억~60억엔을 추가 투입해 전용라인을 2개로 확대설치, 사각형태의 전지를 추가 생산하게 되며 연내에는 월 100만개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충전식전지의 주류였던 니켈카드뮴전지나 니켈수소전지에 추가적으로 멀티미디어 단말기기에 리튬이온전지의 공급을 본격화하게 된다.

그리고 마쓰시타전지공업이나 일본전지 등의 신규 참여도 계속되고 있고 선두주자인 소니 등은 설비능력을 증강해 이에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유아사(Yuasa)도 금년 여름부터 명함크기의 필름형 리튬이온 전지의 샘플출하를 개시하며 샤프는 이미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세계에서 리튬이온전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일본메이커들은 국내외의 수요를 대상으로 리튬이온전지를 양산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日本の 전기메이커 각사가 리튬이온전지를 중요성에 있어 액정에 버금간다고 보고 본격양산에 연이어 착수하고 있는 것은 시장성장이 기대되는 것 외에, 이 전지가 멀티미디어 시대를 이끌어 갈 휴대형 정보단말기기의 기능을 좌우하는 핵심장치이기 때문이다.

이미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는 소형, 경량, 무선화가 진행중으로 야외에서 장시간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가 제품판매에 있어 성패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

日本을 제외한 여타국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어 공급은 일본기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IBM, 애플 컴퓨터社 등 멀티미디어기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각사는 리튬이온 전지를 액정과 맞먹는 전략상품으로 인식하고 고성능 차세대전지 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전지샘플을 공급받는 OA기기 메이커, 통신기기 메이커 등의 수요자가 신제품용의 전원으로 리튬 이온전지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1~2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선두주자인 소니, AT배터리에 의한 생산증가계획이나 신규참여를 노리고 있는 마쓰시타전지공업, 일본전지와 산요전기가 잇따라 생산개시계획을 표명한 것은, 금년내에 공급메이커로서 어느 정도 지명도를 얻지 않으면 금후의 멀티미디어 대응 휴대정보 단말기 등에 대한 판매경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塙, 自動車 蓄電池 수요 전년수준 전망

— 93년 韓國産 수입 3천弗로 매우 부진 —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축전지 93년 수요는 겨울의 온화한 날씨와 함께 시장의 혼란으로 전년대비 약간 상승한 65만개에 머물렀으며, 94년 수요는 93년대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성장기대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용 전자제품인 카스테레오, 팩스기 등의 개발로 최근 소비자들은 구입시 여러 전자제품의 변동스런 전력소모를 소화할 수 있는 고품질제품을 선호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Elbak社에서 개발한 자동차 축전지는 hybrid기술을 이용, 9개월 방치에도 재충전이 필요없으며 독일의 Hagen社 제품은 여러타입의 자동차 모델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용 납축전지는 생산자로 하여금 폐기처리시 환경보호를 위한 많은 비용으로 부담을 주고 있어 머지않아 폐기처리비용으로 1弗 미만 정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수입실적

(단위 : 100개, US\$ 천)

국 별	1992		1993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독 일	1,821	8,704	2,195	8,917
프 랑 스	244	881	309	1,041
이 탈 리 아	55	282	145	477
스 웨 덴	26	203	33	275
핀 란 드	88	287	124	285
한 국	328	769	1	3
계	3,370	13,853	3,629	13,128

〈자료 : 오스트리아 중앙통계국〉

오스트리아 자동차용 축전지의 93년 금액기준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6%가 감소한 1,310弗로 EU·EFTA국가산의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국별 수입 비중으로는 독일산이 68%로 선두를, 다음으로 프랑스가 8%를 차지하고 있다.

93년 한국산 수입은 100개, 3천弗를 기록,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생산업체의 적기선적지 연으로 현지 수입상이 수입선을 타국 업체로 돌린데 기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동차용 축전지에 대한 특별한 수입제한은 없으며 EU·EFTA 제품은 무관세이고 GATT국가 제품은 100kg당 51弗, P1국가(한국, 대만) 제품은 100kg당 26弗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현재 오스트리아 Banner社, 이탈리아의 Baeren社, 독일의 Hagen社 등에서 유명브랜드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산은 품질이 우수해 유럽 및 일본 자동차 생산업체에도 대량으로 납품되고 있는데, 자동차 수입시 오스트리아산 부품의 내장률이 18% 이상일 경우 저율 관세혜택(4%)을 받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오스트리아로부터 축전지 등의 자동차 부품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내 생산은 Banner社가 연 100만개 이상을, 나머지를 Baeren社와 Hagen社가 맡고 있으며 한해에 총 270만개가 생산되고 있다. 생산량중 80% 이상이 수출되며 약 40만개가 대체수요로 국내에 공급되고 있다.

현지 시장의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Banner社, Varta社가 각각 25%씩, Baeren社가 20%, hagen社가 4위로 11% 차지하고 있다. 12V, 45A, 자동차용 축전지의 브랜드별 소매가는 Baeren 106弗, Banner 102弗, Varta 90弗, Bosch 106弗, 한국산 R브랜드는 82弗에 판매되고 있다.

현지 생산업체 Banner社는 독일 자동차업체 VW-Audi, Mercedes, Man에 납품하고 있으며 12만개중 불량품이 4개에 불과할 정도로 품질과 환경보호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현지에서 한국산 축전지는 수입상들의 품질검사결과 독일브랜드 Bosch 보다 불량률이 낮다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그러나 공급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현지 주문량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이 큰 문제로 제기돼 수입상들을 대상으로 거래선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현지 수입상들은 동구권에 2차 수입상을 가졌거나 판매망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다. 현지시장에는 고품질 유명브랜드 제품의 선호도가 높으나 아직 동구권의 경우 고가의 유명브랜드 보다는 저가품 판매가 가능함에 따라 현지 중계상을 활용, 對東歐 시장개척도 유망시 된다.